

## 구례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모처럼 활기 띤 5일 시장



8일 전남 구례군 구례5일시장에 설명철 제수용품을 사러 나온 군민들

전 군민 한명당 10만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제수용품 준비 많아...오늘 같은 날만 지속했으면”

구례군은 전 군민 한 명당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구례 5일 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8일 구례군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25억 6600만 원을 투입해 전체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난 주말 각 마을회관에서 70% 이상 현장 배부를 마쳤다.

군은 지난달 25일 기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6일과 7일 공무원들이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회관에 찾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읍·면사무소와 155개 마을을 대상으로 410여 명의 공무원이 직접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주민들을 만났다. 특히 신청서 작성을 비롯해 코로나19 예방 수칙 안내도 함께 펼쳐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들였다.

양일간 지원금은 1만9090명에게 지급돼 구례군 전체 지급대상자의 75%에 가까운 실적을 거뒀다.

군은 주말 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나머지 주민들을 위해서 8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김순호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군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명절 대목에 직접적인 소비축진으로 침체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목표를 정했다”면서 “휴일인 6일과 7일 공무원들이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시중을 활기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8일 열린 구례 5일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어물전을 운영하는 시장상인 김 모 씨는 “설 명절에 맞춰 지급된 지원금의 효과로 상품권으로 제수용품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많다”면서 “수해 피해와 코로나19로 시장이 많이 침체했는데, 상인들 모두 오늘 같은 날만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불효자는 온다더라” 고향에서 온 1분 영상 ‘몽클’

담양군 비대면 설맞이 영상  
60대~최고 90세 16명 어르신  
객지 자식들에게 안부 전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승헌아 종필아 세운~, 애기들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애기들아 오지 말거라. 엄마가 맛있는거 해서 부쳐줄게”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아 고향 부모님들이 보내온 1분 짜리 짧은 영상이 코로나19로 애태우는 자녀들의 가슴을 몽클하게 만들고 있다.

고향의 정과 파스함이 물어나는 비대면 설맞이 영상으로, 전남 담양군이 코로나19로 아쉬운 명절을 보낼 수밖에 없는 지역민과 귀성객들에게 “비록 얼굴은 맞닿 수 없어 뜨거운 그리움과 마음만은 전달하자”며 제작한 작품이다. 관련 영상은 담양군 공식 유튜브에 올려졌다.

1분06초 분량의 짧은 영상이지만 60대 후반에서 최고 90세에 이르는 16명의 어르신들은 백발에 깊게 패인 주름살에도 웃음을



담양지역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사진=담양군 제공)

잃지 않고 객지 자식들에게 안부를 전했다.

최대인(84) 할아버지는 “될 수 있으면 (올해는) 안오면 쓰겠다. 오지 마라 잉~”이라며 자녀들의 귀성을 말렸고, 김영진(73) 어르신은 “요즘 불효자는 온다더라. 효자는 오지 않는다더라”며 그리운 자식들의 고향길을 애써 막았다.

송영종(73) 어르신은 “나라가 없으면 효(孝)도 없단다. 효보다도 나라 정책을 잘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고, 올해 칠순을 맞은 김정희 할머니는 “이번 설에는 오지 말거라. 엄마가 대신 맛있는거 해서 부쳐줄게”라고 모정을 전했다.

몇몇 어르신들은 “너희들은 준비할 거 한 가지 있지? 봉토(투)!” “시골에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나 많이 부쳐 달라”고 현실적인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영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야 코로나 이겨낼 수 있다. 모두 힘내자”며 어르신들이 손을 불끈 쥐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이번 영상은 설 연휴 여행 자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코로나19 정부 지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차원에서 제작됐다. 모든 영상은 2m 이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가며 제작됐다.

특히, 시골 어르신들이 직접 출연해 지식과 가족·친지에게 보내는 ‘고향에서 온 편지’ 형태로 제작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상황에서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상 촬영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모여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식을 걱정해서 먼저 오지 말라는 영상을 선보여 반응이 더 뜨거운 거 같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목포 고하도 해안데크



국립 나주세천원

## 전남도, ‘코로나 시대’ 안심여행 관광지 50선 선정

전남도가 코로나 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안전하고 소소한 매력을 갖춘 ‘안심여행 관광지’ 50선을 선정했다.

전남도가 발굴한 안심여행 관광지 50선은 바다와 아름다운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 낭만 트래킹을 누릴 수 있는 여행지들이다.

대표적으로 목포 고하도 산책로와 진도 점도 웰빙길, 여수 하화도 꽃섬길, 고흥 속선·연흥도 등이다.

이와 함께 국립나주세천원과 장흥 천관산 동백생태숲, 광양 백운산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장성 축령산 숲재원, 구례 천은사 소나무숲길 및 천개의향나무숲 등이 피톤치드의 향기와 함께 힐링과 치유가 가능한 산림체험지로 뽑혔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오색찬란의

꽃잔치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는 보성 대원사길(봄·벚꽃), 해남 4est(포레스트)수목원(여름수국),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공원(가을) 장흥 천관산 동백생태숲(겨울) 등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수요에 따라 국민들에게 매월 2-3개의 안심여행 관광지를 ‘이달의 추천 관광지’로 소개하며 포스트 시대에 맞춘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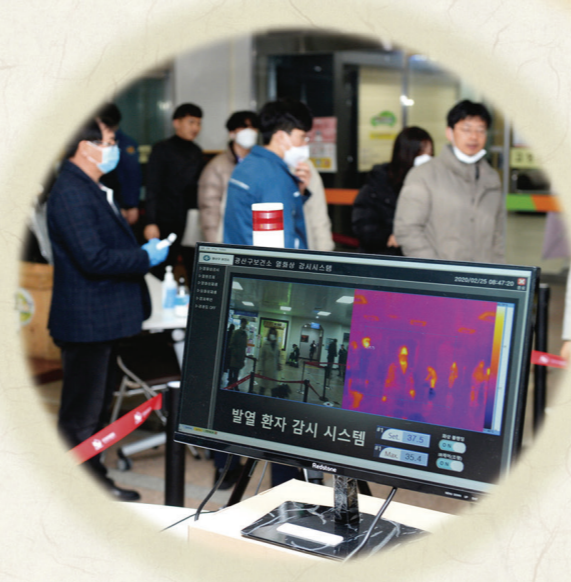
안심여행 관광지 50선과 함께 전남의 모든 관광지 및 식당 등에 관한 정보는 전남도 관광정보시스템인 남도여행길잡이(www.namdokorea.com)와 전남도가 운영중인 관광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환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로 인하여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경

코로나19 양면 극복을 위한  
임대로 인하여  
착한 임대로  
희망2지구 상가 상인회